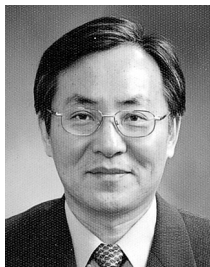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의욕과 결의를 다진 때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기고 벌써 이임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전직 임원진과 학회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덕분에 큰 과오 없이 학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학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제주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발표회는 논문발표편수가 930편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우리 학회가 소위 앞으로의 미래 산업 분야인 IT, BT 그리고 NT 분야의 논문이 주를 이룰 정도로 매우 미래 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IT 분야에 170여 편, BT 분야에 180여 편 그리고 NT 분야에 100여 편 등 명실 공히 우리학회가 미래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학회 회원들의 탁월한 연구역량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특출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고분자 신기술강좌, 고분자 특성분석 등과 같은 새로운 산학협동강좌의 개설, 춘·추계 학회의 개최장소의 변경, 그리고 평의원 선거의 on-line화 등 산학 협력을 통한 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기획과 준비과정에서의 미비와 실수로 인하여 혹시 학회 회원 여러분께 오히려 불편함을 끼쳐 드렸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학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희생 봉사하였으며 탁월한 능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조재영 전무이사를 비롯한 학회 운영이사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끝으로 우리 학회가 더욱 더 발전되어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끄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임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1일
전임회장 **조 원 호**